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 복장유물 현황파악 시급

#### 관리허술 절도범 표적 예경대상 조사 어려움 종단적 합의 선결과제

“골동품 시장에서 복장유물은 주인이 없고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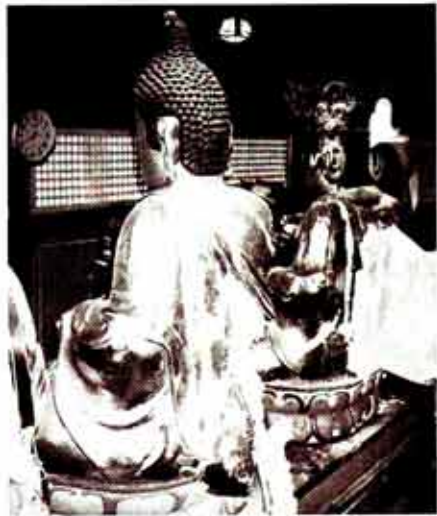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 밀매조직을 적발한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은 오늘날 사찰소유 비지정문화재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불경류 대부분이 사찰소유 불상 복장유물인 것이 사실이다.

5월 초 경주 주사암 등에서 발생한 성보도난 사건처럼, 최근에는 문화재 전문절도범이 아닌 단순 강·절도범들이 복장유물을 노려 무분별하게 불상을 훼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복장유물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불상 안에 복장유물을 넣는 의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후기에 보편화된 전통이다. 불경을 비롯해 각종 전적과 의복,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의 기원을 담은 발원문 등이 포함된 복장유물은 불상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시주자는 물론 당시 신앙생활과 교리, 복식, 의례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조선 초기 불교학과 국어학, 서지학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월인석보> 보물 제 745호를 비롯해 최근 적발된 문화재밀매조직이 갖고 있던 <능엄경 언해>, <해인사판공종수발원문> 등 귀중한 문화재 대부분이 복장유물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보 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해 관리 체계가 허술해 ‘순쉬운’ 범행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복장유물. 한 동안 사찰소유 불화가 주요 표적이었으나 성보박물관이 잇달아 문을 열고 각종 불화물을 소장하게 되면서 훔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복장유물에 절도범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불화가 일반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범행 대상이 복장유물로 옮겨진 이유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복장유물의 특성상 어떤 것이 봉안돼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범인을 걸 거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자료에는 지난해와 99년에 30건 47점에 달하는 성보문화재가 도



○99년 3월 복장유물을 노린 절도범들에 의해 훼손된 안동 장흥사 불상

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상이나 불화 정도만 파악됐을 뿐 복장유물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도난 당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 확인된 건수도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국보급 가치를 지닌 <능엄경언해>나 <해인사판공종수발원문>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에서야 복장유물임이 밝혀진 것들이다.

복장유물에 대한 도난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문화재 관계자들은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황 파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대상인 불상에 합부로 손을 댈 수는 없다’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신앙적으로 예경의 대상이기에 범종단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총무원은 불상이 모셔진 전각별로 범행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선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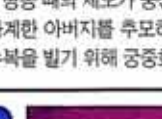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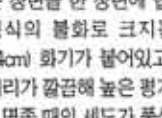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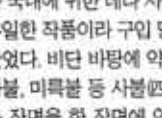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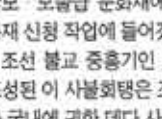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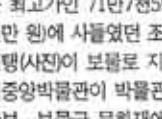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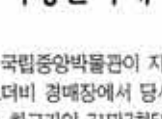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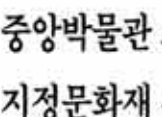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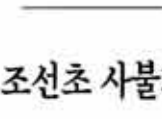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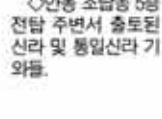
교계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복장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황 조사가 필수적이다”면서도 “신앙적 측면까지 고려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보존처리대책, 보관시설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ny@buddhista.com

### 임진강 고구려 유적서 휴대용 금동불상 발견

삼국시대 정황지였던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 유적인 호로고루성에서 금동불상(사진) 등의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은 25일 그 동안의 발굴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 가운데 단연 눈

길을 끄는 것은 휴대용 금동불상한 점. 가로 세로 4cm 정도 크기로 가운데 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을 넣고 그 사이에 합장한 인물이 하나씩 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양식으로 볼 때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불상의 형태는 뚜렷하나 얼굴이 불분명해 오존산처리 삼존 불의 형식보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형진 기자



### 안동 조탑동 5층전탑 주변 삼국시대 절터흔적 찾았다

통일신라시대 전탑으로 알려진 안동 조탑동 5층전탑(보물 제57호) 주변에서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문양의 수막새와 담장, 주춧돌 등이 발견돼 이 지역에 삼국시대부터 절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안동대 박물관은 최근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5층전탑 주변을 시굴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문양의 수막새 3점과 절터의 담장 및 주춧돌 등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흙으로 빚은 소조불상과 연화문수막새 1점, 고려시대 기와 및 황자조각, 조선초기의 분청사器等이 다수 발견돼 5층전탑 주변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때까지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동대 박물관 측은 “삼국시대 기와가 발견됐다는 것은 삼국시대에도 이 곳에 절이 있었다는 사실의 단서”라며 “절터 규모가 황지 가람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돼 당시 경주뿐 아니라 안동 지역에도 불교문화가 번성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또 “절터가 시굴면적보다 훨씬 넓고 주변에는 가마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전탑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5층전탑 주춧돌 밑에 들어가는 적심석이 3~4겹으로 쌓여 있어 적어도 3차례 이상 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전탑 최상층부에서 대정(大正) 4년 즉 1915년이라고 새겨진 시멘트 벽돌이 발견돼 당시 일본인들이 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사용해 원형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 “인류구원 패러다임 평등과 회통사상”

박영의 교수 주장

“21세기 인류 구원의 패러다임은 불이(不二), 즉 무이무별(無二無別)의 평등과 회통(會通)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26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회장 박경일 경희대 교수) 불학술대회에서 박영의 교수(충남대·사진)는 “소울 벨로우의 <허공에 뜬 사나이>: 자아와 소외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노장사상연구”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벨로우의 소설 <허공에 뜬 사나이>에 나타난 자아와 소외의 문제를 불교와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고찰한 박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박 교수는 주인공 요섭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소외 문제의 핵심은 속박의 원인이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박의 근본 원인인 자신, 즉 ‘아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신의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독선을 떠나 나와 타자가 없는 ‘동체대비’로서의 빈 마음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한 회통은 어려운 것이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조선초 사불회탱 등 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지정문화재 신청 추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97년 3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당시 한국미술품으로는 최고가인 71만7천5백 달러(당시 6억3천만 원)에 사들였던 조선 전기 불화 사불회탱(사진)이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선 불교 중흥기인 명종 17년(1562)에 조성된 이 사불회탱은 조선전기 불화 자체가 국내에 귀한 데다 사불회탱으로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 구급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다. 비단 바탕에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 등 사불(四佛)에 법회를 올리는 장면을 한 장면에 압축해 그린 독특한 형식의 불화로 크지는 않지만(90.5×74cm) 화기가 붙어있고 색깔이나 형태의 처리가 깔끔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명종 때의 세도가 풍산정의 부인 이씨가 타계한 아버지를 추모하고 조모와 자신의 수복을 빌기 위해 궁중화가에 부탁해 그린



방화로 당초 강원도 삼원사에 봉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해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유물 특별전 때 일만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밖에 조선 세종 때 사신도인 ‘봉사조선창화사경’ 조선 전기 계묘묘 그림인 ‘기영회도’ 등 5점도 함께 지정 신청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중앙 및 지방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할 방침이다.

박물관 측은 “그 동안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훼손 우려 등 보존에 별 문제가 없어 문화재 지정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적 유물들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학술 단신

#### ‘종교문화 비판’ 세미나

종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4일 동국대 문화관 석담세미나실에서 ‘한국 종교문화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계·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근대종교의 성격과 문제점’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 ‘종교성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개신교’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의로 진행된다. 02-554-0233

#### 보조사상연구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은 26일 동국대 문화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제38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계에서 관심 있게 다뤄지는 우리 학문의 식민지성과 코메디니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심재관 강릉대 교수가 ‘우리 불교학의 식민성과 그 문제점’을 김정희 한국여성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성명여성주의와 모성애’에 대해 발표했다. 02-733-5311

## 서울불교대학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 Fax 02)588-8055

## 여래선원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대구·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 모 제 1기생 집

말이나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의 신 교다마 설자의 참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집.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사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전라하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얀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얀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사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모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계 문위를 수여함. 모 국내외 이디저 여래선원의 지원을 개원할 수 있음. 모 선원 개원시 직접적(경제적·인적)으로 적극 지원. 모 미얀마·국제불교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모 미얀마·국제승가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1) 모집과정
  - 포교사(디플로마) : Dip(B.D) : Diploma in Byddha Dhamma
  - 교법사(학사) 과정 : B.A.B.Dh)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 선법사(학사) 과정 : M.A.B.Dh) : Master of Art in B. Dhamma.
  - 대학사학사 과정 : Ph.D.(B.Dh)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 2) 입학자격
  -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 각 지원에 자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 해외 유학 결과사유가 없는 자
- 3) 교육기간
  - 불교기초 수료(포교사) 과정 : 1년 (4주 집중수업 필수)
  - 불교학 학사(교법사) 과정 : 2년 (8주 집중수업 필수)
  - 불교학 석사(선법사) 과정 : 3년 (12주 집중수업 필수)
  -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 공히 인증
  - 불교학 박사(대학사) 과정 : 4년 (16주 집중수업 필수)
  -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증
- 4) 수업시간
  - 주 3일(월, 화, 수) 중 주 1회 시간 선택. 월요일 참석
  -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 5) 입학식
  - 2001년 6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해서 험 없이 정진하라!” 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선우들을 위한 서민 선방이여 열터일시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 입방안내
  - 1) 입방자격
    - 종교·학력·연령 제한 없음
    - 불교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자
  - 2) 제출서류
    -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3) 원서교부·접수기간 : 2001. 4. 20-2001. 5. 25
  - 4) 개원식 : 2001년 5월 31일(목요일) 10시 30분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트윈도나츠점)에서 우측 100M(트윈도 고시원앞)

## 海印佛教美術院



해인불교미술원은  
장인정신으로  
불국토를이룩하겠습니다

■ 전통탱화전문 ■ 시왕 조각품채색 ■ 개금  
서울시 중구 목정동 18-27 대익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